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발행일 및 신용등급서 확인 필요. \*금융정보업 상 보호상품 아닌 \*자산가치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주거 목적) 등 원금손실가능 또는 만기 불지급 가능 \*투자자 귀속 \*당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AAA~A, A, BBB 등 \*0.0~0.0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

제322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음주운전·성범죄’ 정직에도 월급 준 공공기관 3

철도노조, 2차 총파업 돌입 촉각 8

코스피(15일 전주 대비)	코스닥
2601.28 (+53.60P)	899.03 (-15.15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325.90 (-7.50원)	3.850% (+0.0559P)

## “제가 결혼한 곳에서 아버지 장례 치렀죠”



“제가 결혼했던 예식장에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광주광역시 광안로에 거주하는 안재진(가명·56) 씨는 4년 전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른 부친상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곳은 안 씨가 20여 년 전 결혼식을 올린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지방 예식장도 성업할 때였지만, 어느새 가 결혼식장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것이다.

예식장 감소, 장례식장 증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29만5137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32년이 흐른 지난해 19만1690건으로 35.1% 줄었지만, 사망은 25만8589건에서 37만2800건으로 44.2% 증가했다. 혼인·사망 역전에 더해 출생·사망도 2020년 역전됐다. 지난해엔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했다. ‘인구절벽’에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흔한 게 당연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이런 현실에 적응한 건 장례식장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세통계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1032개였던 예식장은 지난해 750개로 5년간 4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 기존에 완만하게 줄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산부인과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나, 장기 추이로는 감소세다. 산부인과는 2013년 1397개에서 지난해 1322개로 줄었다. 반면, 장례식장은 꾸준히 증가세다. 2002년 569개에서 지난해 1104개로 2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장례 문화는 변화가 더디다. 한국에선

인구절벽에 예식장 5년새 25%↓ 장례식장, 20년 동안 2배 늘어

형제자매 없이 장례 치르는 상주 경제적·물리적 어려움에 시달려 전문가 “장례문화 빈익빈부익부”

이들간 조문객을 맞고 사흘째 발인하는 삼일장이 일반적이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조의금을 낸다. 고인과 유가족에겐 선택지가 좁다. 정형화한 장례 문화는 유가족과 조문객 모두에게 부담이다. 형제자매 없이 부모의 장례를 홀로 치르는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물리적 어려움까지 겹친다. 이런 이유로 부조 문화에 부정적인 인식도 크다.

사회적으로 화장률이 2021년 90.8%까지 올랐지만,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화장시설(전국 62개)은 인구의 절반이 물리수도권에 7개에 불과하다. 매장 대안(납골) 시설 안전, 자연장은 매장보다 덜할 뿐, 국토를 잠식한다. 고령화와 탈가족화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증가도 문제다.

그나마 코로나19 유행기를 거치며 장례 문화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조문객을 받지 않는 가족장, 일부 장례절차를 생략한 ‘작은 장례식’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산분장(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등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사방식) 제도화와 온라인 추모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고치법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한국의 똑같은 장례 방식은 누군가에게 부담이고, 또 수준의 격차를 만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e@



추석물가 점검 나선 추경호 추경호(맨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추석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고이관 기자 photoeran@

## 고삐 풀린 송출수수료에... TV 끄는 홈쇼핑업계

### 스페셜 리포트

국내 주요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홈쇼핑 시청자 수가 줄어들며 매출은 제자리걸음임에도 송출수수료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어서다.

17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홈쇼핑 업체 4개사(GS·CJ·롯데·현대)의 영업이익 총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15억 원 대비 40%가량 감소한 1269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의 하락 폭이 크다. 양사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감소했다. CJ온스타일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7%, GS샵은 1.6% 각각 늘며 선방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홈쇼핑 업체의 실적 하락 주범은 송출수수료다. 홈쇼핑 업체들은 그동안 유료

4개사 상반기 영업익 40% 감소 불구하고 송출수수료 연평균 증가율 8% 달해 전문가 “정부가 수수료 기준 세워야”

방송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를 지급해왔는데 TV 시청자 수가 매년 주는 데다 송출수수료까지 큰 폭으로 뛰어들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은 65.7%를 차지했다. 송출수수료 총액도 1조9065억 원을 기록, 2018년 보다 33.3% 증가했다. TV홈쇼핑의 방송 매출 비중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50% 이하로 떨어졌지만, 송출수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8%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일부 홈쇼핑 업체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블랙아웃(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

다. 롯데홈쇼핑은 강남케이비티비와 방송송출 계약 종료로 공지했고,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도 LG헬로비전에 계약 중단을 알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 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된 블랙아웃 사태를 미러저리(MLB)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도 홈쇼핑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제안한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홈쇼핑은 유료방송사업자들보다 협상력이 약한 만큼 정부가 제도적으로 송출수수료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I Dream 우주여행

“아빠~ 우주여행 떠나요!”

민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 禮 차리다, 사라진 哀

〈슬플애〉

## 1 대한민국 '보통의 장례식'

장례기간 '삼일장' 인식 강하지만  
갑작스레 父 상주 맡게 된 20대男  
"절차-예법에 애도할 틈 없어" 한숨

"정신이 없었죠." "진짜 애도는 장례가 다 끝난 뒤  
에야 한 것 같아요."

8월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이렇게 말했다.

빈소는 물론 장례식장 복도까지 가득 메운 근조  
화환. 방명록 장수가 넘어갈 때마다 쌓이는 부의함.  
빈소와 접객실을 분주히 오가며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는 상주.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잠시 숨을 돌리며  
황망하게 허공을 응시하는 유족들. 대한민국 '보통  
장례식'의 단면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장례는 삼일장을 치르는 게 보편적  
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장례 3일 차에 화장이 이뤄진 비율은 평균  
78.3%였다. 10명 중 8명 이상은 삼일장을 치른다  
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하는 유족 입장에서 고  
인을 마음에서 오롯이 떠나보내기엔 짧지만, 조문  
객을 받고 인사를 나누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는 것  
을 감안하면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이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임모(26) 씨는 "장  
례지도사가 와서 입관할 때는 뭘 해야 하고 발인 때  
는 뭘 해야 한다고 말해 주는데 정신이 없다"며 "지  
금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 정리할 틈도 없다. 집  
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마음 정리할 시간이 따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에 파견을 나온 상조업체 직원 우모 씨도 "특  
히 장례 첫날에 많이들 경황이 없어 하는 편"이라며  
"(유족들이)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입관식 즈음 돼야 안정을 찾으시더라"고 설명  
했다. 이어 "삼일장 치르는 동안 유족들끼리 애도를  
하는 건 못 본 것 같다"며 "조문객들 받느라 정신들  
없다"고 덧붙였다.

7월 27일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

련된 59세 남성의 빈소. 경기  
도 남양주시에서 조문을 왔다  
는 강모(56) 씨는 4년 전 8월  
같은 장소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며 기억을 더듬었다. 갑  
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이  
별했다는 강 씨는 장례를 치  
르는 3일 동안 제대로 된 애  
도가 불가능했다고 털어  
놨다.

강 씨는 "남편과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3일은 스  
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시  
간들이었다"며 "장례식장에  
조문을 와 주는 지인들에게도 제대로 인사를 못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의 절차가 끝나면 화장을 해  
야 하고, 장지를 정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지만 준  
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다 보니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며 "남편을 떠나 보내 공허  
한 마음은 3일이 지나고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월에는 아버지를 떠나 보냈다는 강 씨는  
삼일장을 '꼭' 지키는 문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고도 했다. 보통 장례를 치를 때 고인이 임종을 맞  
이한 날부터 삼일장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 씨 아버지는 늦은 저녁 돌아가시고 발인은 이른  
아침에 했기 때문에 온전히 조문객을 받고 장례를  
치른 건 사실상 하루뿐이었다고 한다.

강 씨는 "장례식을 준비하다 보니 하루가 또 그냥  
가고, 결국 조문객은 하루밖에 못 받았"다"며 "왜 그  
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게 워낙 오랜 관습이  
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  
다"고 전했다.

장례가 형식적인 면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은 꾸  
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부장  
적 가정의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장  
례문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  
민 87.7%는 '장례의 절차와 예법이 복잡하고 불편  
하다'고 인식했다. 또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에

# 客 떠나니, 그제야 뭉

〈슬피 울 곡〉

## 장례 관련 여론조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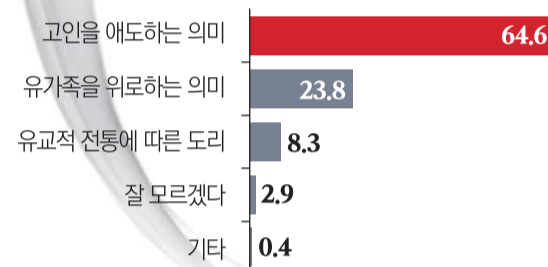
- 조사 기관 : 리얼미터(본지의뢰)
-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오차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앱·웹 조사
- 조사기간 : 2023년 7월 1일 ~ 7월 7일

## 7월 남편 잃은 50대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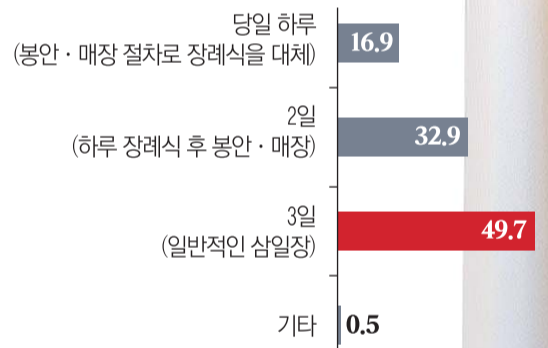
"관습 때문에 삼일장 했지만  
몸과 마음 고통스러웠던 시간"

정형화된 장례식 회의감 높아  
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 장례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의 장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희망하는 기간은?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83.3%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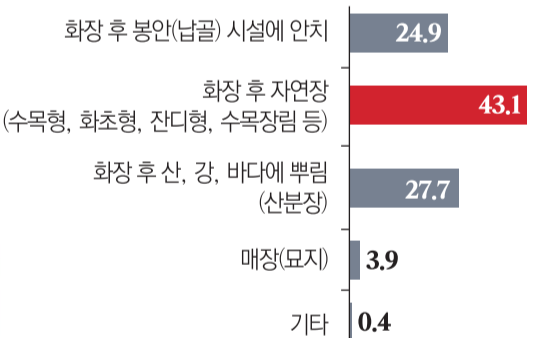
이처럼 정형화된 장례식에는 비용도 적잖게 든  
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에  
따르면, 8월 기준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서울 내 유  
명대학의 장례식장 비용은 빈소 및 접객실 이용료  
가 24시간 기준 약 56만 원(100㎡)에서 540만 원  
(662㎡) 사이에 형성돼 있다. 안치료 9만6000원과  
영결식장 사용료 20만 원, 식사 비용 등은 별도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모시는 안치료,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등 시설 임대와 음  
식, 청소 등에 비용이 골고루 들어간다.

장례식에 적잖은 비용이 드니 "작은 장례식"이 필  
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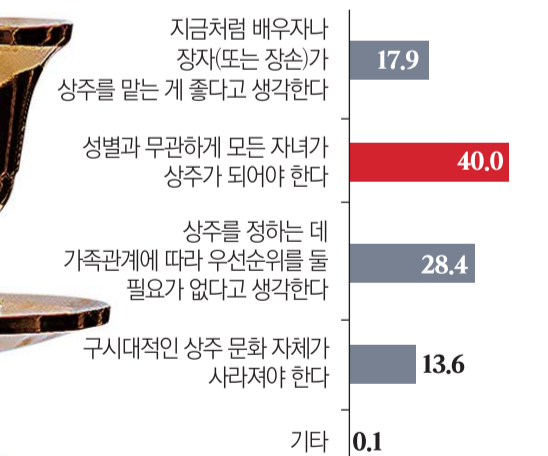
앞서 만난 강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아버지 유  
해를 울산의 한 공원묘지에 잔디장으로 모셨다는 강  
씨는 "결국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아닐까"라며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생소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부터도 조상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  
으니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것"이라며 "이렇게 잔디장  
을 치르면 유골함을 지키거나 납골당을 계속 찾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장례식의 외형보다도 추모와 애도라는 본  
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남우  
부산과학기술대장례행정복지과 교수는 "왜 우리가  
삼일장에 국한돼야 하느냐"며 "애도 기간은 사실 3  
일이든 4일, 5일이든 전통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  
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의 본질인 고인을 애도하  
는 데 집중하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버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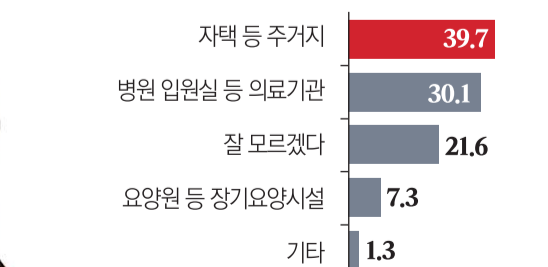
## 자신의 장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 희망하는 방법은?



## 현재 상주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신의 임종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희망하는 장소는?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마지막 길인데" 하다보면... 빈손으로 가는 길 '부르는 게 값'

영화 '잔치'의 주인공 경만(하준)은 일하는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다. 경만  
은 슬픈 감정을 느낄 순간도 없이 장례 비용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

국은 육개장으로 할지 시래깃국으로 할지, 제단  
장식은 생화로 할지 조화로 할지, 수의는 어떤 재  
질로 할지 등. 한 푼이 아쉬운 경만에게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비싼 장례 비용은 가  
난한 자의 슬픔마저 유예한다.

삼일장이 정형화돼 있지만, 장례 비용은 천차만  
별이다. 그렇다 보니 장례 비용에 대한 통계도 변  
변한 게 없는 현실이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것이 고작이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  
라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조문객 100명 기  
준)이다. 이후 평균 장례 비용에 관한 공식적인 통  
계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15년 조사는 일회성이었다"고 답했다.

장례 비용은 보통 장례식장 시설 이용, 묘지 사  
용, 화장 및 봉안 등을 하는데 쓰인다. 여기서 장례  
식장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1일 안치료 6만 원, 위생처리료 9만 원, 염습 입관  
30만 원, 입관 20만 원이다. 분향실 및 접객실 이  
용료는 특실 90만~100만 원, 일반실 20만~80만  
원이다.

임대·음식·수의·관 종류따라 수천 오가  
천차만별 장례비, 변변한 통계도 못내  
"비즈니스화 돼 있는 문화가 문제" 지적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장례식장 비용은 조금 더  
비싸다.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경우 임대료는 1일  
기준 특실은 180만~270만 원, 일반실은 35만~98  
만 원이다. 안치료 7만 원, 염습 입관 40만 원, 입관  
30만 원이다.

수의는 가장 비싼 품목이 170만 원(대마 100%)  
이고, 가장 저렴한 수의는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반  
반 합성된 재질로 20만 원이다. 제단 장식은 50만~  
350만 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제사상은 20만  
~27만 원이다.

목관은 가장 저렴한 품목이 25만 원이고, 가장  
비싼 품목은 향나무 2단으로 150만 원이다. 관보  
는 8만 원, 명정은 4만 원, 혼백은 5000원이다. 장  
의차량 이용료는 40만~50만 원이다.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가장 저렴하게 삼일장  
을 치른다고 해도 장례식장 비용만 500만~600만  
원이 소요된다. 아무리 줄여도 수백만 원이 들어가  
는 셈이다. 분향실, 음식, 제단 등을 최고급으로 할  
경우 수천만 원은 기본이다.

을지대 장례식장 관계자는 "예전  
에는 장례식장에서 '바가지 씌운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가격을公示한다. 어느 장례식장을 가도 마  
찬가지"라며 "오명을 썼던 가격 부분은 최  
근에 와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  
다.

장례비용을 슬기롭게 지출하자  
는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례  
비용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장례방식  
의 다양화로 이어진다. 장례식 장소만 변경  
해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비싼  
수의를 꼭 입어야 할까. 수의보다 내가 평생시  
에 자주 입던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집에서 죽는 게 당  
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병원에서 죽고 이  
후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면 고인을 장례식장  
에 모신다"며 "이 과정이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화돼 있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비용 문  
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주 기자 ssp@



장례 관련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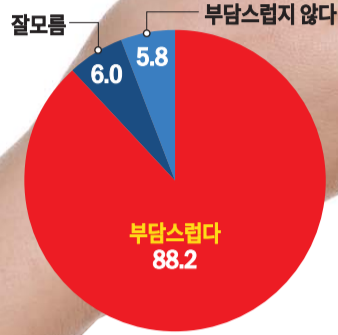
- 조사기관: 리얼미터(본지 의뢰)
-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앱·웹 조사
- 조사기간: 2023년 7월 1~7일

# 삼가 고인의 명복만 빌면 안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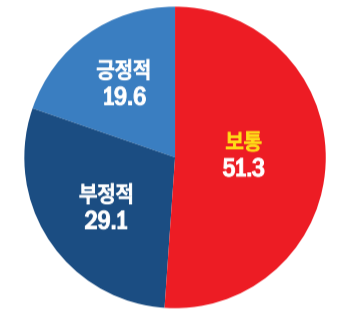
받는 이도, 주는 이도 부담되는 '부조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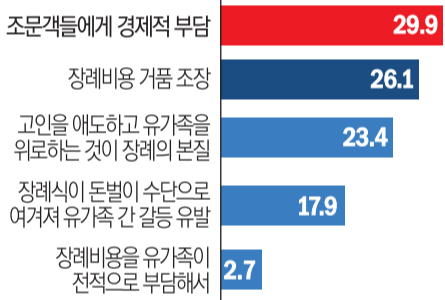
장례비용 부담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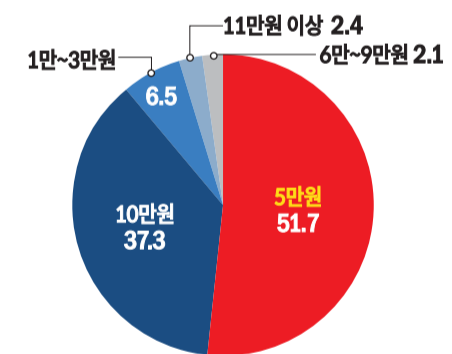
한국의 부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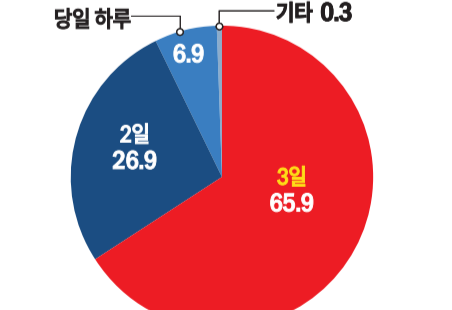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부조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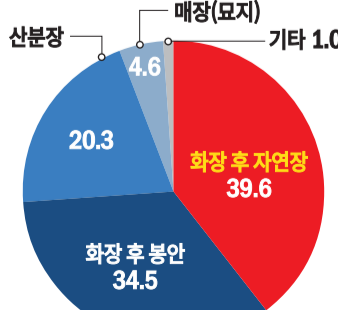
\* 평균 부조금액: 7만3900만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장례기간 (단위: %)



\* 당일 하루: 봉안·매장 절차로 장례식을 대체  
2일: 하루 장례식 후 봉안·매장  
3일: 일반적인 삼일장

바람직한 장례방식 (단위: %)



\* 산분장: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

우리나라 국민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의 장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의금(평균)은 7만 3900원이었다.

18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조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대 이하에서 16.9%, 30대에서 23.6%, 40대에서 22.6%에 머물렀으나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39.4%, 38.1%에 달했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와 초대졸이 각각 24.6%, 25.2%였으나,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은 각각 31.1%, 37.1%였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오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연령대별로 달랐다. 부조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40대 이하에선 '부조 문화가 장례 비용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50대 이상에선 '부조 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에게 부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적정 부조 금액은 연령대가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적정 부조 금액에 대한 평균값이 20대 이하는 8만8100원, 30대는 7만9600원, 40대는 7만1000원,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만7000원, 6만8500원이었다. 특히 50대 65.7%는 5만원 이하를 적정 금액으로 봤다.

장례식 의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고인 애도'라는 답변이 많았으나, 비율은 연령대·교육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9.9%, 67.8%였는데, 20대 이하는 57.6%에 머물렀다. 대신 '유가족 위로'란 답변이 늘어났다. 30대는 이 비율이 29.1%로 60대 이상(18.8%)보다 10.3%포인트(p)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인 애도'라는 답변이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복도에 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줄고, '유가족 위로'라는 답변이 늘었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화장 후 봉안(납골)시설 안치', 높을수록 '화장 후 자연장' 응답이 많았다. 60대 이상은 49.0%가 자연장, 20대 이하는 48.3%가 봉안시설 안치를 꼽았다. 매장(묘지)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8.1%로 60대 이상(2.9%)보다 5.2%p 높았다.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는 연령대다. 교육 수준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거주 지역이나 주거 형태, 가족 형태, 고용·종사상 지위에 따른

본지, 1000명 대상 '장례문화 설문조사' 적정 부조금 '7만3900원'... 젊을수록 ↑ 20대 17%·50대 39% "부조문화 부정적" 나이 들수록 "장례식 경제 부담 ↑" 호소

인식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가 높다는 건 장례식장 방문 경험이 많고, 본인의 장례도 가까워졌음을 뜻한다. 부조 문화, 봉안·매장은 가족·지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장례 방식이다. 부조 문화, 봉안·매장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건 장례를 '특별한 일' 보다는 '일상'으로, '남의 일' 보다는 '내게도 다칠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장례식장 방문 경험이 적다. 본인의 장례도 먼 미래다. 직접경험보단 간접경험을 토대로 인식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상주 문화와 관련해서 성별·교육 수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금처럼 배우자나 장자(또는 장손)가 상주를 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남성의 24.5%가 동의했지만, 여성은 11.3%만 동의했다.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가 상주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여성의 동의율이 47.7%로 남성(32.2%)보다 15.5%p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와 초대졸에서 각각 21.3%, 22.1%가 '장자상주'에 동의했지만,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은 이 비율이 각각 15.9%, 13.3%에 머물렀다. 특히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에선 절반 이상이 '상주를 정하는 데 가족관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시대적 상주문화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가족 형태별로는 3대 이상 가구에서 34.8%가 '장자상주'에 동의했다. 2대 이하 가구에선 이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jye@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부모님께 삼일장 적당하겠지만... 내 장례는 1~2일 희망”

한국의 장례 문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꽤 보수적이다. 여전히 삼일장과 화장 후 자연장 또는 봉안(납골)시설 안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2명 중 1명이 본인의 장례 기간으로 1~2일을 희망한다. 장례 방식으로는 10명 중 7명이 자연장·산분장을 바란다. 누적된 경험·학습 결과로 전통적 장례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자식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장례 문화는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18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9%는 적당한 장례 기간으로 3일을 꼽았다. 2일은 26.9%, 1일은 6.9%였다. 적당한 장례 기간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장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희망하는 장례 기간을 묻는 문항에선 3일이 49.7%로 줄었다. 2일은 32.9%, 1일은 16.9%였다. 교차분석 결과, 적당한 장례 기간으로 3일을 선택한 응답자 중 25.3%는 희망 장례 기간 문항에서 1~2일로 선택지를 옮겼다.

장례 방식 문항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 순위는 '화장 후 자연장(수목형·화초형·잔디형 등)' 39.6%,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34.5%, '화장 후 산분장(유골 가루를 산·강·바다 등

66% "전통적 삼일장 문화 바람직" 하지만 2명 중 1명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싫어" 임종장소 40% "자택"... 요양시설 7% 그쳐

에 뿌림)' 20.3%, '매장(묘지)' 4.6% 순이었다. 반면,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선 자연장이 43.1%로 압도적 1위였다. 봉안시설 안치는 24.9%, 산분장은 27.7%에 머물렀다. 매장에 3.9%로 줄었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 문항에서 봉안시설 안치를 선택했던 응답자 중 33.9%는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서 자연장, 산분장으로 옮겨갔다. 매장을 바람직한 장례 방식으로 꼽았던 응답자는 38.7%가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서 다른 장례 방식을 선택했다. 자연장, 산분장은 장례 비용,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봉안시설 안치, 매장에 비해 자식 등 유가족의 부담이 적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전통적 장례 기간·방식을 바람직하다고 여겼지만, 이 중 상당수는 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보다 간소한 방식으로 장례가 되길 희망했다.

특히 장례 방식 문항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바람직한 장례 방식으론 20대 이하와 30대가 봉안시설 안치를 1순위(각각 48.3%, 41.8%)로 꼽았으나, 40대 이상은 자연장을 1순위로 꼽았다. 60

대 이상은 자연장 응답률이 49.0%였다. 희망하는 장례 방식에서도 20대는 36.0%가 봉안시설 안치를 꼽았지만,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자연장을 가장 선호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봉안시설 안치, 매장을 기피하고 자연장, 산분장을 선호하는 건 자식 등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례식은 '남의 일'에서 '내 일'에 가까워진다. 저연령대에 비해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다.

희망하는 임종 장소 문항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자신의 임종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 희망하는 장소는 어디냐'는 질문에 39.7%가 '자택 등 주거지'를 꼽았고 '병원 입원실 등 의료기관'(30.1%),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7.3%) 등으로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응답자 45.3%가 '자택 등 주거지'라고 답한 것을 비롯해 30~50대에서도 '자택 등 주거지'가 1위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40.6%가 '병원 입원실 등 의료기관'을 선택했다. 희망하는 장례 장소 문항에선 장례식장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60대 이상에선 그 비율이 72.0%에 달했다. 20대 미만과 30대는 장례식장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고인의 생전 주거지'란 응답이 각각 22.1%, 24.2%로 높은 편이었다.

김지영 기자 jye@

# 88세 어르신도, 98년생 젊은이도 “장례희망은 해피엔딩”

“이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죽음이야.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요즘은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 -1935년생 김중화(사진) 씨 인터뷰

“결혼식처럼 장례식도 나를 위한 파티라고 생각해요. 남은 이들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찍었던 ‘인생네컷’ 사진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 이렇게 잘 살았다고.” -1998년생 김기재(사진) 씨 인터뷰

### 3 어떻게 할래? 인생 마지막 길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올해 미수(米壽)를 맞은 김중화(88) 씨는 이같이 답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라거나 “죽음은 곧 구원”이라는 막연한 긍정성과 궤를 달리하는 답변이다. 지상 최대의 권력과 부를 누려도 언젠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묘한 위로감을 준다.

김 씨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태어났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가 온몸으로 관통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32년간 일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 시작 전 “빨리 죽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민폐”라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다. 자신의 존재가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7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080세대 어르신들은 차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다. 어르신들은 떠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마주해야 남은 생이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침 복지관에서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종체험 교육을 참가한 후여서 더욱 담담해 보였다.

노래교실, 운동교실 등에 참여하기 위해 이따금 복지관에 들른다는 김 씨는 “죽고 난 다음에 관에 들어가는 느낌은 영원히 모르는 거고, 살아 있을 때 관에 들어가는 건 어떨지 궁금했다”며 “막상 관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살아온 생활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로 “관에 들어가 있으니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다”고 덧붙혔다.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김모니카(77) 씨는 “잘 산다는 건 잘 버리는 일과 같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과 하나씩 작별하는 것”이라며 “죽기 전까지 잘 버리고, 비워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복 이듬해 태어나 평생 교사로 생활하고 은퇴했다는 김 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50대 딸이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개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친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다. 그는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전 아니다. 나는 너대로, 나는 너대로의 삶이 있다”며 “살아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랑 나랑 즐겁게 살아가는 거다. 내가 없어도 잘 살 거라고 믿는 거 말고 될 수 있겠나. 잘 살고 못 살고는 이제 자기 몫이다”고 말했다.

복지관 임종체험 교육에 함께 참여한 박정례(68) 씨는 “내 영정사진을 마주했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겹쳐지더라”며 “사진 찍을 때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찍을걸. 내 장례식이니깐 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좀 웃는 모습으로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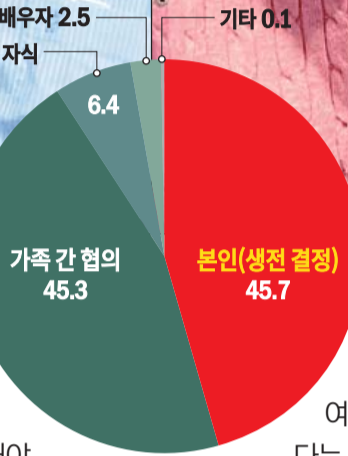
황혼기 어르신들은 우리의 장례문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본지 설문조사(19일 자 4면 참조)에서 부조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29.1%)이 긍정적 비율(19.6%)보다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부정(38.1%)과 긍정(22.6%)의 격차가 더 컸다.

김중화 씨는 “부조 문화는 오래 지속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에게는 부조 문화가 꼭 필요하다”며 “장례비도 없이 죽는 사람이 많다.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나는 부조 문화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모니카 씨는 “그냥 몸만 와서 빌어주기만 하면 된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 난 거기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요즘은 연락 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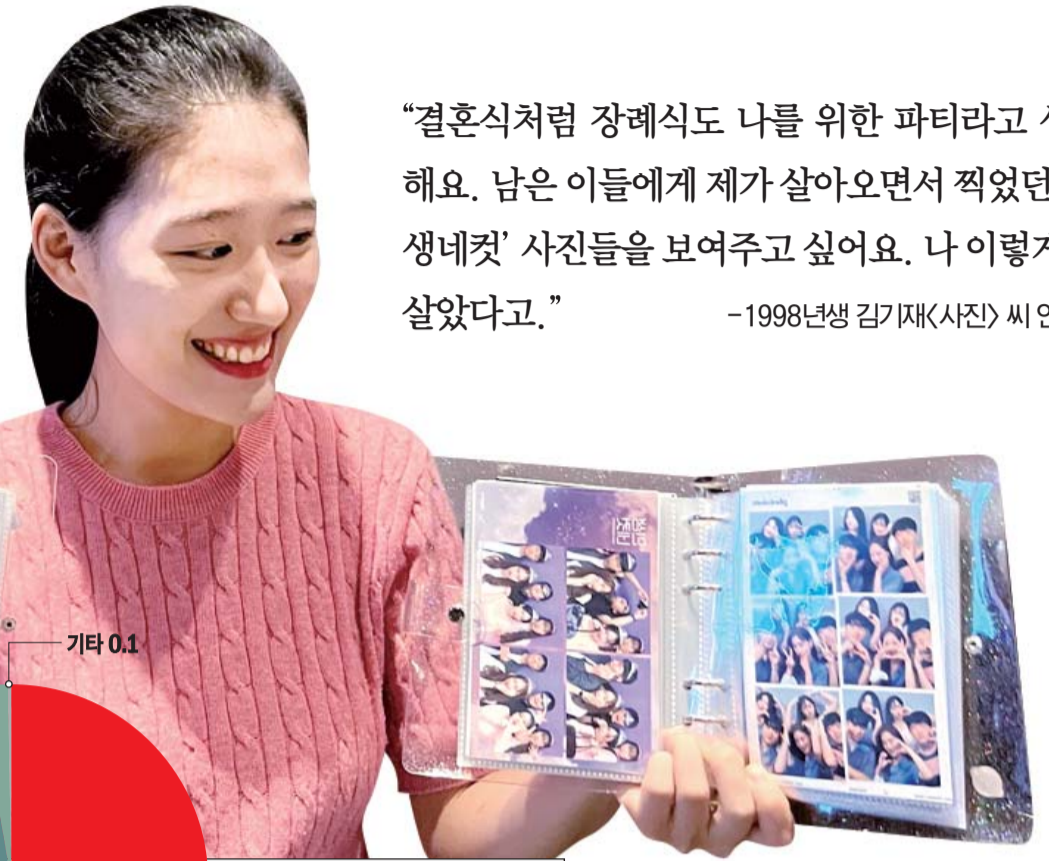


장례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자신의 장례식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본인(생전 결정)’이 45.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 간 협의’의 45.3%, ‘자식’ 6.4%, ‘배우자’ 2.5%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장례 방식을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만19~29세의



경우 ‘본인(생전 결정)’을 희망하는 비율이 53.5%로 절반을 넘었다. 남성(41%)보다는 여성(50.3%)이, 기혼자(44.7%)보다는 미혼자(45.5%)가 장례 방식을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응답했다.

별도로 만난 7080세대와 Z세대들도 비슷한 건이었다. 황망한 죽음은 ‘애사’임에 분명하지만 자신의 장례가 무겁고 슬픈 분위기가 아닌,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말했다. 이어 “돌잡이를 가도 성장 과정 사진을 보여주고, 결혼식에서도 보여주는데 장례식도 결국엔 하나의 행사 아닐까 생각한다”며 “개성 있게, 그리고 ‘인싸’답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함께 사진들을 보던 석유진(25) 씨는 “굳이 너무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통곡하는 분위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며 “그냥 지인들이 느끼는 그대로 나를 생각하다 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장례식장에는 내 사진과 내가 좋아했던 옷, 향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와서 나라는 공통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만난 이동환(24) 씨 또한 “외국에서 하듯이 장례식을 파티로 진행하고 싶다”며 “무겁고 슬픈 자리가 아닌,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세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하게 하니 장례식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내 SNS를 보여주든 나를 추억하기 좋을 것 같다”면서도 “그래도 TPO(Time·Place·Occas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옷을 입을 때의 기본원칙을 이르는 말)라는 표현이 있듯이 적당한 예복을 갖춰 입고 고인을 기린다는 의미는 퇴색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장례식을 생각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유태형(21) 씨는 “내 장례식에는 지인보다는 내 다음 세대가 올 것 같다. 지금 장례식을 생각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내 장례는 자녀들이 치러줄 것이고, 부모님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해드릴까가 더 고민”이라고 밝혔다.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에서 만난 황신원(28) 씨는 “결 차례 식으로 치르는 다 똑같은 장례는 필요 없다고 본다”며 “꼭 와야 하는 사람들만 왔다가 가는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 장례는 누가 치러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내가 장례를 치를 시기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가진 사람이 많을 테니 친구들끼리, 결혼을 안 한 사람들끼리 서로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도 싶다”고 했다.

지금의 장례식이 아직도 과거의 낡은 형식을 따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신원 씨는 “장례식장에서 여성은 상주를 못 한다는 게 참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며 “여성도 남자 가족을 ‘도련님’, ‘형부’ 등으로 부르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석유진 씨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주는 ‘여남’ 구분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자 형제가 있어도 상황에 따라 여자가 상주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 정유정 기자 oiljung@

88세 김중화 “죽는 날 민폐 안 되길”  
50대 발달장애인 자녀 둔 김모니카 “사는 날까지 최선... 떠난 후엔 딸 몫”  
박정례 “안 웃은 영정사진 마음 쓰여 화장 대신 반려전 무덤 결 묻히고파”



사진 왼쪽부터 박정례(68) 씨와 김모니카(77) 씨.

미리 ‘부조금 사양’이라고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장묘(葬墓) 방식에 관한 의견도 다양했다. 김중화 씨는 자식들에게 화장을 당부했다. 그는 “떨리 갈 것도 없이 그냥 화장터 옆에 뿌리면 된다. 산이고 바다고 필요 없다. 죽고 나서는 근거를 많이 남기면 안 된다. 자식들 바쁘는데 제사도 지낼 필요 없다. 그저 살아 있을 때 잘하면 된다”고 했다.

박정례 씨는 “산분장에 특별한 거부감은 없지만 난 매장 을 원한다”고 했다. “장례식은 생전 내가 좋아했던 장소에서 했으면 한다. 양수리 팔당담이 보이는 남향 나무 아래 우리 강아지 두마리가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 내 장례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장례식장에 틀고 싶은 음악으로 김중화 씨는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김모니카 씨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박정례 씨는 고복수의 ‘희망가’를 꼽았다.

글·사진 송석주 기자 ssp@

25세 김기재 “마지막 파티, 호텔에서”  
25세 석유진 “조용한 추모식 원해”  
24세 이동환 “SNS로 함께해줄길”  
21세 유태형 “나보단 부모가 걱정”  
“無자녀·女상주... 장례문화 변화를”



사진 왼쪽부터 이동환(24) 씨와 유태형(21) 씨.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기재(25) 씨는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가까웠던 사람들과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추억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Z세대는 아직은 ‘남의 일’에 가까울 법한 장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에서 장례식은 대형 상조업체 등을 통해 치러지는 등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지만, Z세대들은 장례식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치러주는 간소한 장례를 원한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김 씨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넘겨 보여주며 “네 컷 사진이 100장이 넘을 정도로 사람들과 사진 남기는 것을 좋아한다”며 자신의 장례식장을 네 컷 사진들로 장식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인싸’라고 불린다는 김 씨는 “장례식은 나를 위한 마지막 파티”라며 “큰 호텔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추억해 줬으면 한다”고

# “그저 추억하면 충분합니다”... 온전한 작별 ‘15분 추모식’

“체코 시민들은 이전에 가족의 장례식을 치렀던 좋은 경험을 토대로 다시 프라하 장례서비스공사(HPS)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틴체르브니HPS최고책임자(대표)는 7월 1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HPS는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체코 시민들은 HPS에 대해 믿을 만한 전통적인 장례기관이라는 인식이 크다”고 강조했다.

체코는 국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다. 1911년부터 HPS를 설립해 장례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체르브니 대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 시대에 영안실로부터 장례를 치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며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국에서 시민들의 장례를 주관하는 자격을 프라하시에 준 것으로 HPS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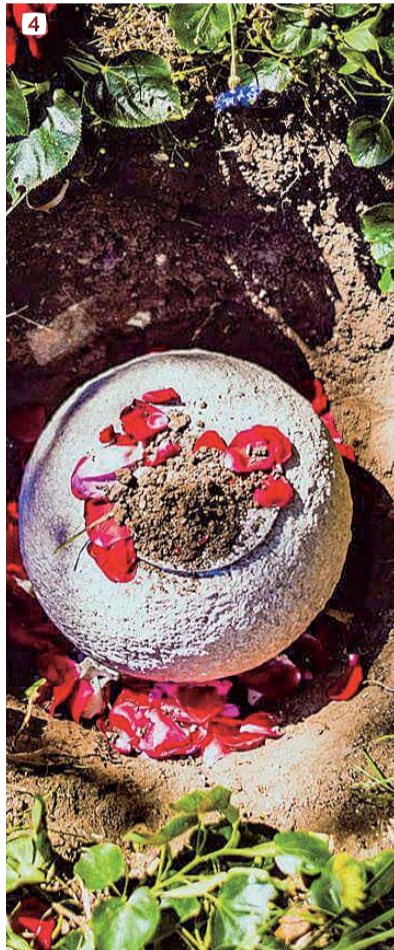
현재 프라하시에는 HPS 소속 지점이 9개나 있다. 이곳에서 유가족들은 장례서비스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부터 꽃, 관, 유골함 등 고인의 화장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프라하 시민들이 HPS의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30%가량이다. 체르브니 최고책임자는 “1988년 이후 사설 장례업체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체코 내에 16~17개 정도의 사설 장례업체가 있다”며 “비율만으로 따져봤을 때 공영 장례업체인 HPS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는 국가 특성상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식 장례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다. 사회적으로도 현대적인 장례 방식이 선호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로 바뀌었다. 체코의 화장률은 85% 수준이며, 프라하는 97%에 이른다.

체르브니 대표는 “체코는 공산주의 문화도 있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체코 시민들은 장례식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체코에



공산주의 문화로 ‘허례허식’ 지양 국가에서 장례서비스 ‘HPS’ 운영 부조 대신 작은 선물·꽃으로 대체 화장률 85%, 비용 100만원 미만



- 1 프라하 장례서비스공사(HPS)가 관리하는 모들 화장터의 전경.
- 2 HPS가 설립한 ‘장례 스튜디오’의 내부 모습.
- 3 슈츠라니체 화장터 내 그레이트 홀의 모습. 그레이트 홀에서는 유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는 ‘15분의 추모식’이 열린다.
- 4 수목장을 선택한 고인의 유골함이 땅에 묻히고 있다.
- 5 유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
- 6 숲속 묘지 안에서 유가족이 고인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를 읽고 있다.

사진제공 프라하 장례서비스 공사(HPS)

는 고유한 전통 장례 문화가 있기보다는 정부의 법규와 관련한 위생 부분을 더 신경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문객들이 돈을 주는 부조 문화도 없지만, 고인을 위해 소정의 선물이나 꽃 혹은 화환을 주는 문화는 있다”며 “때때로 장의사들이 꽃을 사는 대신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HPS의 장례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HPS에서 화장만 할 경우에는 3178코루나(약 20만 원), 관을 포함해 시신 보관, 운송 등을 하고 의식 없이 간단한 장례식을 치른다면 1만4200코루나(약 80만 원)가 든다. 간소한 의식을 포함해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대략 1만7800코루나(100만 원)면 충분하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장례 비용은 적어도 800만~1500만 원이 든다. ‘역대’ 비용이 들어가는 프리미엄 장례 시장도 호황이다.

체르브니 최고책임자는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르고 싶은 시민들은 사설업체를 이용하긴 하지만, 체코 보통의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면 다른 곳에 비해서 HPS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하(체코)=김채빈 기자 chaebi@

※본 기행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마틴 체르브니 HPS 대표

## “남겨진 사람의 치유가 우선”... 112년 공영장례 ‘뿌리 깊은 믿음’

죽음을 삶의 마무리로 여기는 체코  
오염 대신 화장터 옆 추모사로 끝내  
유가족들 위한 휴식·상담시설 마련



이리 클라로벡 HPS 홍보 담당자

“체코에서 화장하기 전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은 단 15분 만에 끝납니다.”

마틴 체르브니 프라하 장례서비스공사(HPS) 최고 책임자(대표)는 체코의 장례 문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시립장례식장이나 사설업체에 연락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소요 시간은 평균적으로 15분”이라며 “유가족이 묘지 등에서 의식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통 화장터 옆 추모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부연했다.

체코 프라하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 시설인 ‘슈츠라니체 화장터(stransnice crematorium)’는 체코 장례 문화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최고(最古)’란 수식어에 걸맞게 외형도 웅장하다. 본지는 7월 18일 이곳을 방문해 한국의 ‘삼일장’과 대비되는 ‘15분 추모식’과 화장 시설, 유가족을 위로해주는 ‘장례 스튜디오’를 견학했다.

1932년 개관한 스트라슈니체 화장터는 화장장, 의식장, 묘지 등을 갖췄으며

총면적 450㎡, 높이 16m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화장터 앞에는 HPS의 장례 서비스 지점이 있어 HPS를 통해 장례를 하는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화장부터 시작해 고인의 관, 유골함, 화장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직원과 상담해 결정한다.

특히 화장터 내에는 고인을 화장하기 전에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이 ‘15분의 추모식’을 하는 그레이트 의식 홀이 있다. 보통 프라하에서 유가족들은 짧은 추모 의식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 시간 이상의 시간을 예약해 추모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홀은 총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유가족들과 장의사의 의견에 맞춰 추모식이 열린다.

체코 시민들은 죽음을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마무리라고 믿으며, 장례 행사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들도 고인의 마지막 길이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마무리되기를 원한다. 너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장례

도 지양한다. 화장터를 방문했을 때도 유가족들이 오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리 클라로벡 HPS 홍보 담당자는 “슈츠라니체 화장터에서는 작은 규모의 바코바 홀과 큰 규모의 그레이트 의식 홀에서 화장 전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이 치러진다”며 “보통 15분 동안 장례식이 이뤄지는데 장례식 내내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거나 녹음된 음악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모식은 굉장히 간결하게 치러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체코의 화장률은 85% 수준이다. 수도 프라하는 화장률이 97%에 이른다. 묘지 안전보다는 화장을 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장례 문화다. 화장터 내 유골함에는 화장터가 생긴 이후에 화장된 수를 의미하는 번호도 새겨져 있다.

이곳 화장시설의 특징 중 하나는 ‘친환경’이다. 체르브니 HPS 대표 “수십 년간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화장을 진행하고 있다”며 “열 여과 장치를 이용한 친환경적

인 방식으로 유해 가스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 이후에 유가족들이 묘지 내 보관할 것인지, 집에 가져갈 것인지, 특정 장소에 뿌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나해 HPS는 슈츠라니체 화장터 맞은편에 ‘장례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고인과 이별한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장례 스튜디오에는 고인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부터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소파 등이 비치돼 쉬 수 있는 공간, 장례공사 직원들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의 옷을 갈아입히며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클라로벡 홍보 담당자는 “고인을 보내고 난 후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례 스튜디오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전시회, 강연 등 행사를 통해 더 현대적인 장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했다”고 말했다. 프라하(체코)=김채빈 기자 chaebi@



# 놀이터 옆 무덤가

런던 하이게이트 묘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워털로(waterlow) 파크. 보호자와 놀이터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왼쪽 사진). 서쪽 묘역에 들어서면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 양 옆에 묘비가 조성돼 있다.

## 5 영국·오스트리아의 '죽음과 애도'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 점이 좋아요.”

7월 23일 영국 런던 '하이게이트 묘지'에서 만난 수(60)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만나러 묘지에 방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이게이트 묘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며 “방문객 대부분은 이곳에서 예의를 지킨다”며 “그들 덕에 어머니가 외롭지 않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했다.

하이게이트 묘지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형 공동묘지 중 하나다. 1820년대 기존 교회 내 묘지 포화로 기독교인도 매장될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런던 공동묘지 컴퍼니'에 의해 건립됐다.

하이게이트 묘지는 팝스타 조지 마이클, 작자 조지 엘리어트와 더글러스 애덤스 등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관광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이곳은 이집트식 기둥 등 역사 유적을 볼 수 있는 서쪽 묘지와 독일 태생 사상가 칼 마르크스의 묘비를 만날 수 있는 동쪽 묘지로 나뉜다. 묘지 입구 안내소에는 마르크스를 상징하는 인형·엽서 등 다양한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다.

마르크스가 잠들어 있는 동쪽 묘지에는 숲길을 거닐며 고인을 추억하는 방문객이 많았다. 한 관광객은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묘지 앞에 붙은 한 자루를 내려놓고 짧게 기도했다.

마르크스 흉상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시리아 출신의 아마드 후마다(56)는 “미국에 거주 중인데, 오직 마르크스를 보기 위해 런던에 왔다”며 “마르크스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묘지가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 영국의 最古 공원형 묘지 '하이게이트' 마르크스 등 유명 학자·작가·가수 안치 담장 너머 워털로 공원... 시민 쉼터 배치

만, 하이게이트 묘지의 분위기는 달랐다. 하이게이트 동쪽 묘지를 담벼락 하나만 두고 마주하고 있는 '워털로' 공원에서는 주말을 맞아 시민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다. 공원 안 놀이터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다. 공동묘지가 바로 내려다보였지만, 여느 공원과 다를없이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중앙묘지'도 고인을 기리는 추모객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붐비는 명소다. 특히 음악의 성지답게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이 잠들어 있는 곳은 '음악가(MUZIKER)'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빈 국립중앙묘지는 1894년 빈시(市) 당국이 시내에 흩어져 있는 다섯 곳의 묘지를 한데 모아 조성한 것으로, 240헥타르(ha) 규모의 광대한 녹지대에 약 300만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7월 20일 이곳에서 만난 폴란드인 온 미콜라이(30·남)는 “평소에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빈에 와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묘비를 보러 왔다”며 “묘지도 나무도 많고 숲길로 형성돼 걷기에 편하다”고 말했다. 동행한 연인 파울리나(32·여)는 “폴란드에서는 보통 연후 때 가족들이 고인들의 묘지를 찾아가는 문화가 있다”며 “묘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무섭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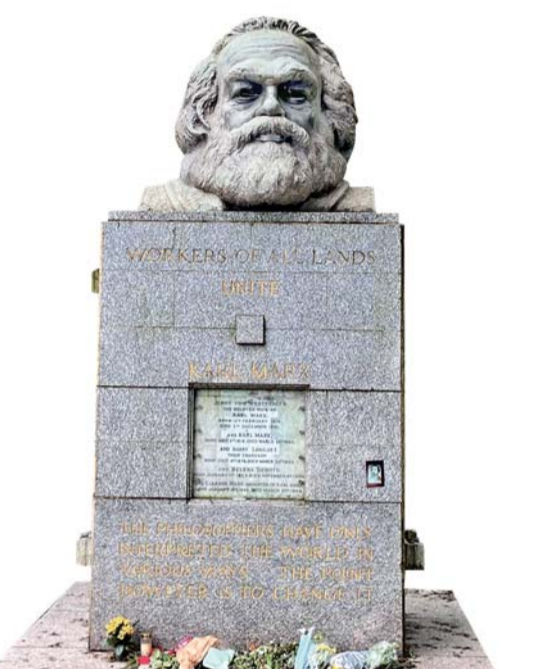
묘지 안에 있는 박물관에선 빈의 장례 역사부터 장례 문화 전반을 엿볼 수 있다. 빈의 특징 중 하나는 화

장물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도 묘지에는 고인들이 안장되고 있다.

빈 국립묘지에는 역대 시장들의 이름이 새겨진 시장 묘지, 일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 묘지, 수녀 동상이 있는 묘지 등 다양한 형태의 묘지가 있었다. 알뜰 세상을 떠난 아기들의 구역도 조성돼 있다. '아기' 구역에는 바람개비, 인형, 장난감 등 여러 장식품이 놓여 있다. 아이들이 공간에 지금도 머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남편의 묘지를 자주 찾는다. 올리비아(84·여)는 “묘지 근방에 살고 있는데 혼자 산책하면서 먼저 떠난 남편을 보러 이곳에 자주 온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런던(영국)·빈(오스트리아) = 글·사진 김재민 기자 chaebi@정유정 기자 oiljung@

## 거대 녹지 오스트리아 '빈 국립중앙묘지' 베토벤·슈베르트 등 최고 음악가 잠들어 '죽음은 삶의 일부' 혐오시설 인식 없어



오스트리아 빈 국립 중앙묘지 근처에 거주하며 이곳에 묻힌 남편을 만나러 오는 올리비아.

영국 하이게이트 묘역에 있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묘비.



## 묘지 곁에 살면서 남편 보러 온다오

“Letum non omnia finit”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라틴어 명언-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국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에디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 죽음 앞에 왔다고 울어서야 쓰겠소

“이곳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도 자주 가시고 집에선 많이 위태로웠는데, 여기 오시니 웃으시네요.”

7월 24일 영국의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의 병동에서 만난 말기 암 환자 에디의 딸 로레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잠들어 있던 에디 옆에선 그의 딸뿐 아니라 아내 리타와 손녀 젤마가 환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와 그 가족이 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표정이 밝았다.

런던 남부 시던햄(Sydenham)에 위치한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현대 호스피스의 시초로 1967년 시슬리 손터스에 의해 설립됐다. 런던 남부의 브롬리, 크로이던, 램버스, 루이섬, 서드크 등 5개 지역이 관할이다. 에디와 같이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전체 환자의 48%는 말기 암 환자다.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들이 찾는 곳이었는데도 분위기는 어둡지 않았다. 이날 호스피스 입구 앞 카페테리아에서는 호스피스를 방문한 이들이 대화



를 나누고 있었다. 한쪽 벽은 통창으로 돼 있어 바로 앞 정원의 녹음을 볼 수 있었다.

카페테리아 한편에는 환자들을 위해 제작된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유인물들이 비치돼 있었다. 처음 호스피스를 방문한 환자에게는 두 권의 안내 책자를 제공한다. 각각의 제목은 ‘성크리스토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와 ‘앞으로의 일 준비하기: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들’이다.

해당 책자들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겪을 수 있는 신체·정신적 변화를 알려준다. 신체 혹은 인지 기능을 잃었을 때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양도할 수 있는

## 英 런던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안락한 죽음 준비’ 1967년 설립 자발적 입원...말기암 환자 48% 모든 서비스 무료, 기부는 필수 최고 가치는 웃음 되찾는 ‘안정’

지 안내하기도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죽음 이후’라는 소책자가 제공된다. 해당 책자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이곳이 특별한 점은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이다. 호스피스는 운영 자금의 약 42%를 영국 국영의료서비스(NHS)로부터 지원 받고 나머지는 기부를 통해 충당한다.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500만 파운드가 모금돼야 한다.

이처럼 기부가 중요한 탓에 호스피스 곳곳에는 모금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벽면에는 ‘기부 마라톤’ 참여를 촉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으며, 구매 대금이 호스피스에 기부되는 카드 판매대도 마련돼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아만다 마요 간호 지도자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기증하고 이를 되팔아서 수익금을 마련하는 중고 거래 상점도 23곳 운영하고 있다”며 “임종을 맞는 이들이 재산이나 집을 호스피스 앞으로 넘겨서 들어오는 기

부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환자들의 만족과 안정이다. 호스피스는 우선 환자들이 여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마요 지도자는 “환자들이 오면 실내체육관에서 운동 기능을 확인한다”며 “남은 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 신체·운동능력이 어떤 상태인지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눈을 감는 마지막까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마요 지도자는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해 준다”며 “집에서 임종하게끔 유도를 하지만, 의학적 돌봄이 필요해 집에서 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여기서 돌본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호스피스를 찾는 환자 중 70%는 집에서 임종한다고 했다. 글·사진 시드넬(영국)·정유정 기자 oiljung@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 병동의 매니저인 패트릭 오셰어(왼쪽)와 의료팀 리더인 케이트 그레이스.

# “죽음 터부시하는 사회... ‘작은 장례’ 가장 큰 걸림돌”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례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작은 장례’가 그중 하나다. 공공영역에서 ‘작은 장례’ 사업을 시도하기도 하고, 작은 장례를 주관하는 사설업체들은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24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보람상조는 상조산업을 이끌어갈 트렌드 키워드로 S·T·O·R·M을 제시했다. S·T·O·R·M은 △1인 가구의 증가(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ing)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고객 소통 강화(Talk to consumer) △온라인 추모 증가(Online memorial space) △온라인 몰 리워드 프로그램 강화(Reward payment) △추모품의 다양화(Memorial jewelr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이는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르는 ‘작은 장례’가 장례업계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장례문화에서 작은 장례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개인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장례문화에 관한 본지 설문조사 결과(▶2023년 9월 19일자 4면 참조)에서 응답자 1000명 중 66%가 “전통적 삼일장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한 반면, 본인 장례는 1~2일을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2명 중 한 명꼴이었다.

작은 장례서비스 전문업체 ‘채비’의 전승욱 부장은 7월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채비의 ‘추모식 장례’는 일상에서 다시 떠올리기 힘든 고인의 생애와 사랑

의 기억을 잘 정돈해서 좋은 관계로 서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삼일장을 1일로 단축하고, 전문장례식장빈소 대신 종교시설의 예배공간, 카페, 지역 공유공간 등을 이용하고, 음식을 자체 조달하면 조문객 대접을 풍성하게 하면서도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장례 방식 변화  
고인 추모 중심 절차 간소화  
일반 업체비 200만원 저렴  
‘작은장례사업자’ 속속 등장**

‘채비’는 2010년부터 장례로 인한 고비용 부담을 덜고 작고 아름다운 장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출범했다. 특히 채비는 장례절차, 장례용품, 봉안서비스 등 비용을 크게 줄였다. 일반 장례업체보다 서비스 이용료가 200만 원가량 저렴하다. 장례식은 고인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추모식’을 중심으로 치러진다.

전 부장은 “일례로 고령의 어머니가 임종할 것 같다면, 자녀 중 한 명이 찾아와 추모식 준비 상담을 진행한다”며 “사진을 모아서 추모 영상을 제작하고,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의 생애사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생애사, 추모 영상, 작별인사, 유품테이블 추억나누기, 헌화 등의 순서로 치러지는 추모식은 오로지 고인을 알고, 유족과 조문객들의 상실을 위

## 6 마지막을 바꾸려는 사람들



작은 장례서비스 전문업체 ‘채비’의 전승욱 부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채비

로하는 자리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채비는 작은 장례뿐 아니라 채비 학교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전 부장은 “추모식 준비 과정, 유품 정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죽음과 장례에 관한 여러 강의를 열고 있다”며 “우리나라만큼 죽음과 일상

**‘채비’ 전승욱 “삶·죽음 공부 필요  
채면·두려움에 안착은 하세월”  
서대문구 작은장례 추진했지만  
저비용에도 이용 없어 폐지수순**

분리하는 경우는 드문데, 장례와 추모공간의 주거 근접과 함께 죽음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삶의 의미와 의지를 뚜렷이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장례”에 대한 공감대가 늘고 있지만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개인 차원에서 작은 장례를 선호해도,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여전히 정통적 장례방식을 ‘고인에 대한 예의’로 보고 있어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은 장례문화’ 사업을 주도했던 서울 서대문구는 올해부터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서대문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건의 작은 장례식을 지원했다. 서대문구가 관내 동신병원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작은 장례식은 삼일장 기준 상조비용이 140만 원 이내다. 장례식장 대여료도 10% 할인한

다. 여기에 구는 작은 장례식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장례 서약서를 쓰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으로 사업을 홍보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이용률은 저조하다. 구의 작은 장례를 이용한 인원은 2016년 0명, 2017년 3명, 2018년 10명, 2019년 15명, 2020년 1명, 2021년 5명이었고, 지난해에도 4명에 머물렀다. 이에 작은 장례식 지원 예산도 2016년 1250만 원에서 2018년 690만 원, 2021년 170만 원으로 줄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작은 장례 사업이 실용성이 높았던 사업이 아니어서 올해부터는 중단하게 됐다”며 “다만 여전히 동신병원과 협력을 맺고 있어 병원 측에서 작은 장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홍보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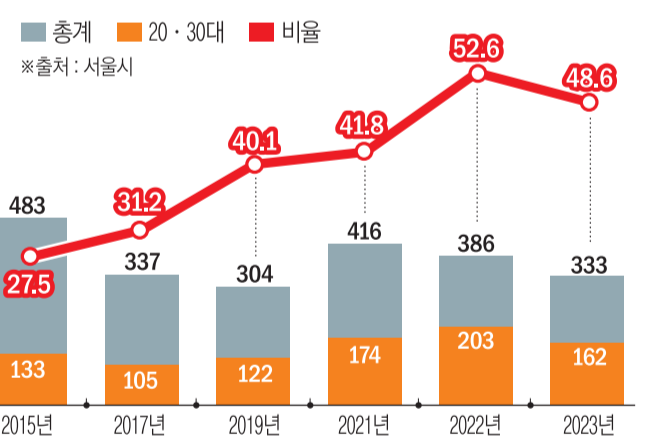
장례를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공급 확대는 의미가 없다. 서대문구에서 작은 장례 사업을 담당했던 김시우 지역경제과 주무관은 “처음에는 작은 장례 문화를 일반인에게 확산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주된 목표였다”며 “당시에는 홍보가 될까 의아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장례에 관한) 허례허식을 없애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장례 자체가 사회 문화로 정착되기까지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채빈 기자 chaebi@



## 서울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단위: 명, %)

※ 연령 산출 기준: 자격증 최초 교부일 당시 연령(10~80대)  
※ 2023년은 1~7월까지



## “度 넘는 게, 진짜 道일까요?”... 장례문화 양지로 이끄는 MZ세대들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 장례 문화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MZ 장례지도사’인 유튜브 장스토리 TV(35·활동명·이하장 씨)는 7월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최근 장례문화 변화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사촌형이 장례지도사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이 생겼고, 나 또한 장례지도사에 입학해 2010년부터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다”며 “장례지도사가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인원 배출과 함께 미디어 노출로 젊은 장례지도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2014년부터 동종업계 동료이자 대학 동기인 원 씨(활동명)와 함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상조회사 선택 기준·방법’, ‘현직 장례지도사가

말하는 장례식장 비용 줄이는 방법’, ‘장례지도사 되는 방법’, ‘장례지도사가 힘든 이유’ 등 다양한 영상을 통해 장례 정보를 전달한다. 주로 운전하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종종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 씨는 유족들이 장례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유튜브 활동을 결심했다. 그는 “많은 유가족 분들과 상담하면서 유족들이 장례를 너무 어려워하고, 정보도 제한적이라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주제는 즉흥적으로 구독자들이 남겨준 댓글을 참고하거나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찾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 ‘장례’ 위해 ‘장례’ 택한 2030

**장례지도사 자격증 절반이 젊은층  
유가족 상황 맞춘 다양한 방법 제시  
불필요한 관행 줄이며 의식 간소화**

최근에는 장 씨와 같은 젊은 장례지도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업무가 시행된 2012년 8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590명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 중 20~30대는 2012명(30.5%)이다. 특히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20~30대는 2012년 124명에서 2018년

145명, 지난해에는 20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이 제도화한 건 2012년이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단체에서 300시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장례지도 전공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이 다소 엄격함에도 장례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청년들이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장 씨는 장례문화에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다양한 장례방식이 있다면 유가족들이 상황에 맞는 장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상황에 맞게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간소하게 할 수도 있는 문화

가 정착된다면 다양한 장례문화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양복, 개량한복 등의 복이 다양해졌는데, 왜 꼭 삼베수의를 입어야 하는가. 근조화환, 원치 않는 노잣돈 강요 등도 불필요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장 씨는 “장례지도사로서 어떤 사망감이라기보다는 유가족들의 슬픔이 장례를 통해 잘 위로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모든 분이 스태프잡스의 명언인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라는 말을 곱씹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물음' '관'에 눕고서야 '깨달은 울음'

많은 영화와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죽음은 폭우나 낙화(落化)로 상징된다. 주로 폭우가 비극·슬픔을 극대화하는 장치라면, 낙화는 삶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장치다. 임종 체험을 위해 영등포역에서 천안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 7월 13일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가상의 죽음'을 경험하러 가는 길에도 영화에서나 불법한 클리셰(cliche)가 연출됐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백석웰다잉힐링센터에는 죽음을 체험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정용문 백석웰다잉힐링센터장은 이곳을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과거 장례지도사로 활동했던 정 센터장은 현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정 센터장은 도박 중독에 걸린 남편과 함께 한 중년 여성을 기억에 남는 체험자로 꼽았다. 그는 "부부가 온갖 방법을 써도 도박을 끊을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왔다더라"며 "체험 중에 남편이 대성통곡하면서 부인에게 사죄했다. 이렇듯 임종 체험은 단순히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걸 넘어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린 자식을 보낸 부모를 보는 일은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져서 가슴이 참 아프다"고 전했다.

거센 비바람에도 이날 센터에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았다. 교보생명 신입 직원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임직원들의 생명보험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보생명 신입 직원 30여 명은 일반인 참가자들과 함께 정 센터장의 사전 교육을 들은 뒤 본격적인 임종 체험에 들어갔다.

체험의 첫 번째 순서는 '영정사진 촬영'이다. 20대 초중반의 신입 직원들은 서로의 영정사진을 보며 "실물보다 영정 사진이 더 낫다" 등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이때까진 진지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각자의 영정사진을 받아든 이들은 입관 체험을 위해 센터 내 강당으로 이동했다. 수의를 입은 뒤 촛불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정 센터장은 무작위로 마이크를 주면서 유언장을 읽게 했다. 유난히 쾌활

**7 살기 위해 죽는 '임종체험'**

마음의 상처로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생명의 소중함 일깨우는 곳

부인과 함께 찾은 도박중독 남편 체험 끝난 후 오열...아내에 사죄

직장 갈등으로 힘들었던 30대女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성찰

해 보였던 신입 직원 A 씨는 "아빠"라고 말한 뒤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유언을 다 읽지 못했다. 같은 회사 직원 B 씨는 "엄마, 매일 방 청소 안 해서 미안해. 나 없다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잘 지내요. 아빠, 너무 친근하고 다정한 아빠여서 고맙웠어요. 가장의 무게를 덜어 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라면서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 나갔다.

유언장 읽기 순서가 끝나자 정 센터장은 "안타깝지만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됐다.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라. 여러분 옆에 있는 관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입관 체험용 관은 안전을 위해 사방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관 속에 들어간 시간은 고작 2-3분이었지만 긴 침묵의 시간이었다. 울음을 터트린 참가자도 있었다. 입관 체험이 끝나자 정 센터장은 "이제 여러분에게 새 삶이 주어졌다"며 제2의 인생 시작을 알렸다.

혼자 센터를 방문한 김미정(30·여) 씨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극단적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남들보다 빨리 승진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힘들어진 게 불과 6개월 전"이라고 말했다.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건 주변인들의 반응이었다. 하소연했지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가 나약한 거 같은데", "배부른 소리 하네", "네가 질투 나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등 지인과 동료들의 반응은 김 씨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니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됐다. 김 씨는 "너무 죽고 싶어서 오히려 내가 살 이유를 찾고 싶었다. 인터넷을 보다가 임종 체험이라는

걸 알았다"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 정도는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임종 체험을 통해 나를 객관화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날 보게 됐다"며 "가족들을 챙긴다고 날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산 것 같다. 이제라도 나에게 잘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유언장을 쓸 때 눈물이 많이 났다고 했다. 기자의 부탁에 그는 흔쾌히 자신의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걸까? 나는 그렇다고 얘기를 못하겠어.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았거든. 너무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산 거 같아. 나에게 한 번의 생이 더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런 행운이 있을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다시 우리 가족 그리고 오빠를 만났으면 좋겠다. (중략) 마지막으로 나 잘 살았다고 한 번씩만 얘기해줘. 그러면 진짜 아무 여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아. (중략) 사랑해. 나는 정말 행복했어. 더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천안=송석주 기자 ssp@

## 남은 가족들의 '마음 치료'합니다... 슬기로운 장.의사 생활

7월 19일 찾은 경기도 의정부 금오동 을지대병원에서는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었다. 올해 24주년을 맞은 을지대 장례지도학과는 한국 유일의 4년제다. 재학생들은 장례학·생사학·보건학 등 이론을 포함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장례 관련 실무 배우는데 3·4학년 학생들은 매주 돌아가면서 2명씩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실습한다고 한다.

이날 만난 장례지도학과 3학년 전관호(23)·윤주노(23) 씨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장례지도학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장례지도학과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례 수요 증가다. 취업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었다. 전 씨는 "어머니는 좀 걱정하셨다. 아버지는 차라리 잘 됐다며 진로를 확실히 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도 편찮다며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죽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윤 씨는 "한국에선 죽음을 터부시하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기 싫은 주제를 그냥 벽장 안에 넣어 놓는다

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벽장 문을 열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장례지도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다. 진로는 다양하다. 장례를 경영학과 융합해 다양화하는 장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장례기획자 등도 유망한 직업이다. 윤 씨는 "장례사회학이라는 과목이 있다. 일반인들에게 장례 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교육적인 측면을 배우는 과목"이라며 "인젠가 나도 장례 문화를 전파하고 사회 인식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장사행정학이 흥미로웠다. 수업 과제로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사했다"며 "장례 관련 시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이 나뉘었다. 갈등의 원인부터 해결 과정 등을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다"고 소개했다.

장례식장 실습을 통해 시신 메이크업 등 고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유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장례전문인을 꿈꾸고 있다.

최근에는 탈가죽화, 1인 가구 증가와

을지대, 국내 유일 4년제 장례학과 3학년부터 매주 2명씩 장례식 실습

전관호 "장례, 슬픔도 보내주는 것 관련시설 부정인식 개선 나설 것"

윤주노 "무연고 사망자 수습하며 사회문제-존엄성 대해 깊이 고찰"

맞물려 무연고 사망자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대개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 윤 씨는 "실습을 하면서 무연고 사망자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시신의 보존 상태나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힘든 면도 있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나.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직접 경험하니 심리적으로 잡혀졌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윤 씨는 "롤랑 바르트가 쓴 '애도일기'를 보고 많은 걸 느꼈다. 바르트가 어머니의 죽음을 이후 쓴 일기들을 엮은 책인데,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하던 바르트가 결국 글쓰기를 통해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순간을 엿볼 수 있다"며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례는 그런 태도를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전 씨는 "장

례는 고인을 떠나보내면서 슬픔도 함께 떠나보내는 거다.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장례는 고인을 추모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송석주 기자 ssp@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에 재학 중인 전관호(23·왼쪽) 씨와 윤주노(23) 씨.

탈가족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사환경 변화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화장시설 공급은 사망자 증가세를 못 따라가고 있고, 삼일장 후 봉안·매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장례 방식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국토 잠식으로 이어져서다. 정부의 대안은 장사시설 확대와 산분장 제도화다. 큰 방향은 장례 방식의 지속 가능성 확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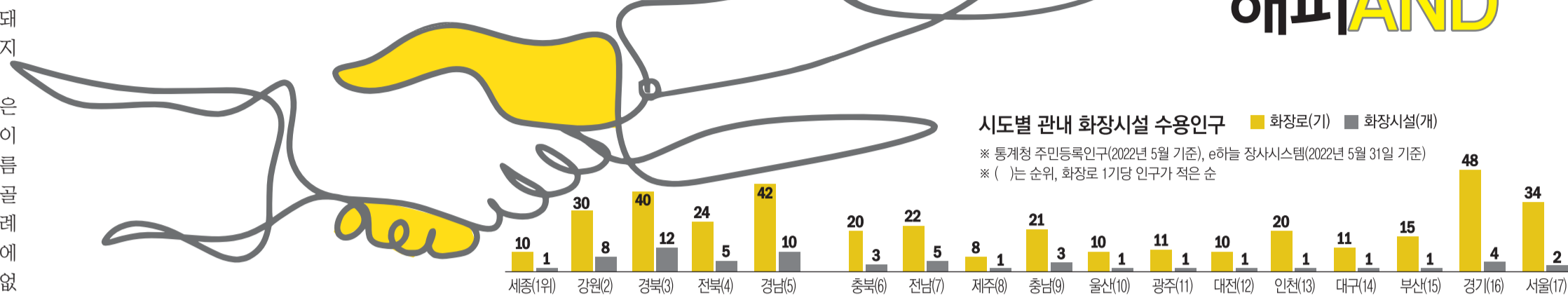
### 탈가족화·고령화로 전통장례 의식 변화 현재 화장시설, 사망자 증가세 못 따라가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국 화장시설은 60곳이다. 화장로는 376기, 화장로 1기 당 수용인구는 13만7191명이다. 화장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인구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은 7곳에 불과하다. 서울의 화장로 17기당 수용인구는 32만5372명으로 세종(3만7934명)의 9배에 육박한다. 수도권 화장 시설 확충의 최대 장애물은 혐오시설이란 낙인이다. 복지부는 서울, 경기 동북부,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화장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이라며 "자연장지시설은 10곳 정도에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모두 지원하기 어려워 장사시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 방식에선 산분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분장은 화장 후 분골을 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법이다. 소나무 숲에서 분골을 산분하는 스페셜 스토클러스의 '회상의 숲'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장된 유골·분골이 특정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안적 장례 방식으로 꼽힌다. 박 과장은 "현재도 산분장을 육지에 서 하는 건 법제화해 있지만, 해양장은 법적 근거가 없

## 해피END 위한

### 8 한국 장례문화 전문가 제언<끝>



## “괴롭고 혼란스러울 가족 위해... 사전장례의향서 준비를”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부터 유언장 작성까지 본인의 죽음을 인지하는 '웰다잉 교육' 필요

**인터뷰**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사학과 교수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될 죽음을 외면할 할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일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사학과 연구실에서 만난 이범수 주임교수는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의 죽음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상장례문화학회, 한국죽음교육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삶과 죽음, 장례문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장례를 사전에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 본인의 죽음을 인지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죽음만큼 우리에게 큰 사건이 없다”며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챙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고 싶은지”,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묻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웰다잉 교육의 첫 번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가 말하는 웰다잉 교육의 시작은 “당신의 죽음은 어떤 것 같을까” 등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사건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는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등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며 평소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죽음을 직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단순히 ‘너 장례 어떻게 치를 것이냐’며 대담 죽음을 들이미는 건 권력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차근차근 죽음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순서는 죽음이 도래했을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언장 등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복지관 등에서 웰다잉 교육을 하면 영장사진도 미리 찍는다”며 “임종심리학을 배우면서 임종 순간의 환자와 그 유족들의 심리를 케어하는 것을 배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인지

하게 되면, 죽기 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다. 그는 “사후 시신 처리나 유산 문제 등도 미리 정할 수 있게 되고, 죽기 전 꼭 이뤄야 할 일들인 일명 ‘버킷리스트’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며 “가령 싸웠던 사람과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웰다잉 교육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웰다잉 교육을 미리 받으면 가족의 죽음을 마주할 때의 혼란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죽음이 실제로 다가올 임임을 알기에, 평소 고인과 헤어짐을 생각하고 고인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가족들의 장례에 더 정신없을 수밖에 없다”며 “웰다잉 교육을 받으면 고인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고인이 살아있었을 때 내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웰다잉 교육을 미리 받은 사람은 유족으로서 가족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장례식장에서도 편안한 조문객을 맞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정영주 기자 oijung@

## “고립된 노인, 방치하지 않기 위해... 지자체 역할 넓혀야”

1인 가구 증가,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 지방 정부, 주민의 생애 주기 관리해야

**인터뷰**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늘고, 무연고 사망자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정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장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가족에서 동거인, 친구, 국가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꼭 가족만이 내 장례를 치러야 하나? 원룸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가 이웃이자 가족”이라며 “웰다잉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례 주관자 범위는 오래된 논쟁거리다. 원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는 최근 소정의 성과를 냈다.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실질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이 같은 아니다. 법이 시행돼 도 실질적 부양자나 돌봄제공자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선 연구자를 찾아서 장례를 치를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 한 달 이상 소

요해 장례가 지연된다. 만약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하겠다고 해도 지인들은 생전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주가 될 수 있다. 원 대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가족의 개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혈연 중심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의 일상을 함께 하는 사람에게 내 장례를 맡기고,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하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토록 노력했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삶을 쉽게 포기하지는 것이 아니다. 부질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지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서 사는 노인들 밖에 지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고 난 다음 발견되면, 그곳으로 전화하라는 ‘마지막 메시지’다. 원 대표는 “결국 풍류 있게 죽는다는 건 살아 있을 때 죽음을 철저히 준비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혹시나 경로당이나 등산 친구가 미덥지 못하면, 내 장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영주 기자 ssp@

그는 또 “일본은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장례기탁금을 받는다. 무연고자들은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으니 지자체에 적금 형태로 자신의 장례비용을 지불한다”며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연락하고,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장례는 어떻게 치르면 좋겠다”는 내용의 사전장례의향서도 쓴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것도 일종의 노인 복지서비스”라며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에 원 대표는 자신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사전 장례식’을 꼽았다. 그는 “‘웨딩플래너’처럼 내 마지막 직업으로 ‘생전장례플래너’를 하고 싶다”며 웃었다. 원 대표는 “내가 죽어서 관측에 들어가 있으면, 내 장례를 치르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런 장례식이나 예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내 육체와 정신이 온전한 때, 생전 고마웠던 사람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참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을 직접 건네고 싶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정영주 기자 ssp@ 사진/신태형 기자 holjjak@

## “유한한 삶, 의미있게 살기 위해... 죽음도 교육이 필요”

해외선 '죽음학' 필수 교과과목으로 이수 韓 장례, 유족 살피는 사후관리 포함해야

“젊은 나이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오히려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 기회를 제공한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죽음에도 공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열심히 죽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생 공부’에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포함된다. 죽음에 대한 공부 유한한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오(San Antonio) 대학에서 장례학을 전공하고, 미국 장례지도사 및 시신위생처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1999-2000년에는 장례 분야를 전문화해줬다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초동 단계였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미국에서 유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유학 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으로 1년을 보냈다. 학생 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대통령, 대기업 회장,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무섭지만 신기하

고 흥미로웠다”고 떠올렸다. 이제는 장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만들어 유족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달리 표현하면 장례 기획이다. 이 교수는 “최근에는 내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인이 예술가였다면 작업 공간에 고인의 작품을 전시해놓고 마치 전시회처럼 장례식을 하는 식”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종류의 장례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의 장례 문화는 차이가 크다. 장례식을 할 때 한국은 고인을 영안실에 모신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80-90% 장례 장소에 고인을 모셔놓고 치른다. 때문에 고인의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연출되어야 한다. 그레아 조문객들도 거부감이 없고 인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 시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동장백을 들어 올려 피를 한쪽으로 빼고 다른 한쪽으로는 방부액을 넣는 ‘엠바밍(Embalming)’ 과정을 밟는다”며 “사고사 등으로 시신이 많이 훼손

됐다면 해당 부분을 인조적으로 다시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만(半)미라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조문객들이 와서 손도 잡고 뽀뽀도 한다. 우리나라 정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종 전후로 유족을 케어(care)하는 것도 장례지도사의 몫이다. 노인이 실질적으로 임종을 맞았을 때 변화를 살피는 것부터 장례 절차가 끝나고 유족들을 보살피는 사후 관리(after care)까지 포함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지만, 해외는 유족의 심리를 케어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끝에 이 교수는 장례학을 공공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주고 듣고야 그때부터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타나톨로지(Thanatology)라고 해서 일종의 죽음학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다. 젊은 나이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오히려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송석주 기자 ssp@

**인터뷰**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 “평등·품위 있는 마지막 위해... 공영장례·상주 범위 확대”

현재 장례절차 상업적 과시수단으로 변질 죽음의 주체성 고려... 문화·인식개선 노력

“죽어서도 불평등한 게 우리나라의 장례식이다.”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은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장례 제도 개편을 주도한다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례 문화·인식 개선을 주도한다. 특히 ‘죽음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품위 있는 추모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고 원장은 “과거 한국의 장례 문화는 공동체 문화의 일부였다. 가난한 집도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마을 차원에서 장례를 치러줬다”며 “산악회 과정에서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장례가 공동체 문화에서 분리됐다. 상업성이 짙어지고, 일부에선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고비용 장례는 유가족과 조문객 모두에 부담이다. 장례 비용은 200만 원대부터 1억 원 이상으로 다양하다. 시설·물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조문객이 없거나 적으면 200만 원대 비용도 유가족에게 부담이다. 반면, 수목장을 위한 나무 한 그루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례 시장도 호황이다. 상급종합병원 특실 등에서 장례식을 하면 장례 비용은 1억 원

이 훌쩍 넘는다는. 빈도만 보면 장례식 후 화장·인장까지 800만~1500만 원 구간에서 수요가 많다. 고 원장은 고비용 장례의 원인 중 하나로 ‘죽음의 비주체성’을 꼽았다. 유가족이 장례 방식을 정하다 보니 가장 보편화한 방식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보다 고인을 떠나 보내는 형식·절차가 더 집착하게 된다. 그는 “일본에는 ‘직장(直葬)’이란 게 있다. 당일 장례를 직장으로 바로 간다. 그 비중이 30% 넘는다”며 “일본도 과거엔 장례에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였는데, 이제는 고인이 생전에 스스로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 장례 형식·절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일 등 유럽에선 공영 장례가 일반적이다. 상조업체나 장례식장 주도로 이틀간 조문객을 받고 사흘째 발인·화장·안장하는 한국과 달리, 유럽에선 공영 시설에서 화장·안장을 한다. 장례식은 형식 면에서 추도식과 구별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고인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 장례 절차의 품위다. 화장시설도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 고 원장은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큰 벽을 두르고 있지만, 유럽은 한 공간에서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지영 기자 jive@

복지부와 진흥원은 죽음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고 원장은 “내가 죽었을 때 화장할지, 매장할지 등 희망하는 장례 절차를 전선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웰다잉의 한 수단으로서 생전에 의향서를 기록하면 공공이 인증하고, 사후에 그걸 유가족들이 보고 따를 수 있게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필요한 납골당 등 오프라인 추모공간을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도 활성화한다. 언제든 고인의 생전 영상, 사진을 보고,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과거 유행했던 미니홈피와 유사한 형태다. 고 원장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삶을 기록하고, 그걸 특정한 공간에 남길 수 있다는 건 무엇보다 존엄한 일”이라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종교계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플랫폼은 이미 활성화 단계다”고 말했다. 모든 죽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의무화하고, 공영장례인 별빛버스 운영사업 지원을 늘린다.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장제 주관자 범위도 확대한다. 글·사진 김지영 기자 jive@

**인터뷰**  
고치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